

종립학교를 가다

(2) 정광중·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필봉(筆峰) 아래 자리한 정광중·고등학교. 해방 이후 만암 송종현 스님의 발기로 백양사, 대흥사, 선암사, 화엄사, 송광사 등 전라도 지역 5개 본사에서 사재(私財)를 모아 설립된 광주·전남지역의 유일한 불교종립 학교다.

1946년 목포 정광사를 임시학사로 첫 발을 내디딘 정광중·고등학교는 6·25 당시 폐허가 되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흥의인간의 교육이념과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중심 학교로 발돋움했다.

사이버스쿨 운영 정보인재 길러

지금은 석천은 이사장 스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바른 가치관을 갖고 행동이 부활한 사람 △지력(知力)을 갖추어 자기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 △자비심으로 협동하고 봉사하는 사람 △항상 탐구하며 창조적 기능을 가진 사람 △건전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로 불철주야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대지 총 48,037㎡에 운동장, 여학실, 컴퓨터실, 방송실, 과학실, 예절교실, 생활관, 체육관 등 최신 시설을 갖춘 정광중·고등학교에는 각각 779명과 814명의 정보보가 학업에 매진

외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미 정보화 소양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광은 교사들도 수업자료 개발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교육 연구 시범학교로 서 손색이 없다.

학생들의 소질·적성개발 및 취미·특기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능력을 개발하여 대학진학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 또한 정광이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대학 진학과 연계된 영어회화, 시상상식 토론 등 31개의 부서를 운영하며 대일 추천 전



전라도 지역 5개 본사에 의해 설립된 정광중·고등학교는 사이버스쿨 운영, 특기·적성 교육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도량이다. 사진은 중학교의 다도실습 장면.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들의 손발이 돼 주고 있다. 또한 전교생이 자비의 쌀 모으기, 북한어린이를 돕기 위한 통일 돼지 모이기 등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불교어머니회가 창립되어 현재 교직원들과 매달 1차례 정기법회, 분기별 성지순례와 같은 신행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신행활동으로 인근 주민들은 부처님 마음을 가진 참사람을 길러내는 학교로 정광을 인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철 교장을 중심으로 교사, 동문 등 정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시함으로써 기금을 모아 지난해 설립한 '맑은 빛 불바나 장학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에 매진할 수 없는 정보리들을 돕고 있다. 또한 학부모가 간간이 된 교복 공동구매를 통한 거품제거와 교육방송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실시, 체벌 없는 교단사회 구축을 위한 생활지도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주일·김두식 기자

백양사 등 5개본사 설립
4년제대학 진학을 97%

북한 어린이돕기 운동
동문 장학회 후원도

하고 있다. 특히 학교 곳곳에는 학교 역사와 함께 사찰 소개 등 다양한 게시물이 있어 불교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교육도량으로 손색이 없다.

고등학교가 지난해부터 교육정보화 시범학교인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광의 자랑거리다. 교사와 학생의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웹 중심의 정보 활용 교육 기반을 구축한 사이버스쿨은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벌써부터 교내

행시 전형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활동 결과는 지난해 진학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7%에 육박하고 서울대 등 서울지역 소재 대학에도 많은 학생들이 진학해 지금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광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광은 종립학교로서의 불교신행활동도 왕성하다.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는 매주 클럽활동시간을 통해 정기법회, 다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매주 수요일 정광

'3박자 농업론' '禪茶'가 교육철학

정광고 경철 교장
정광중 전왕인 교장



경철 교장



전왕인 교장

여 3박자 농업론을 외치는 겁니다." 경철 교장이 지역 사회에서 내로라하는 왕성한 활동가로 평가받음으로 인해 정광고등학교의 이미지도 상당히 활력 있게 자리를 매김해 가고 있다.

정광중학교의 전왕인 교장은 학교의 특색사업인 선다(禪茶) 예절교육에 열정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선다 예절을 통해 전통예절과 불교의 수행정신을 가르쳐 인격완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교장은 실천이 없는 학문이 인간과 사회를 어렵게 한다는 생각으로 생활교육에 역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임연태 뉴미디어 부장

교법사실에서

이동배 교법사

"불심으로 마음 아름답게"



정광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종교 교육과 불교학생회를 비롯한 각종 불교활동을 이끌고 있는 이동배 법사는 모교에서 일하는 행복한 사람임을 자처한다.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이동배 교법사는 정광의 법당으로 출가를 한거나 다름이 없다. 학교를 집 삼아 생활하며 법당을 가꾸고 각종 법회와 상담, 수업을 역척스럽게 해 내는 이동배 교법사는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세대 감각을 놓치지 않는 현실감과 교육자로서 법사로서의 근엄함, 거기에 10여년 군법사 생활에서 습득한 지도력이 보태져 항상 밝고 따뜻한 법사님의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정신교육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만큼 법당과 교법사실이 학생들의 내면을 성숙시키는 또 다른 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배 교법사에게는 당연한 소원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는 교육 인재로서의 전담임을 표상하는 불교 상징물들을 교내에 조성하는 것이다.

정보센터 수혜관에 불서 보내주세요



정광중고등학교가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5월 15일 개관한 수혜관(도서관)은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함께 이용하는 종합 정보센터다.

신도시로 발전하는 학교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수혜관을 지역민들에게도 개방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불교 서적을 대량 비치해 지역민들에게 불교도서관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의 뜻. 도서의 전산화 관리도 물론이고 500여 석의 열람실과 2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할 수 있는 서가와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컴퓨터 10여대를 갖췄다. 그러나 수혜관의 서가는 아직 빈 곳이 더 많다. 학교에서는 지역 불교계 등에서 불서를 기증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062-941-2498

"발우공양 등 사찰문화 체험"

미황사 어린이 한문학당

수 있다.

해남 미황사는 7월22일부터 7박8일간 세심당에서 '2001년 제4회 여름 어린이 한문학당'을 연다. 단기출가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한문교육을 비롯해 인성교육, 다도, 참선, 발우공양,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사찰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금강(미황사 주지) 스님과 법인(대운사 수련원장) 스님이 교육을 맡을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지만 참가할

이번 행사를 주최한 금강 스님은 "이번 학문학당은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우리 문화를 접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가르치고자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교육 인원은 남녀 초등학교 15명씩으로 접수 마감은 30일까지며, 참가비는 15만원이다. 또 2차 교육은 8월1일부터 8일까지 4학년에서 6학년이지만 참가할

청소년 단선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24일까지 삼성동 봉은사에서 '제2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마련한다.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 게임, 찬불가, 레크리에이션 등 세과정으로 나눠 진행할 이번 교육에서는 △심어롱 특강 △여름나라 게임특강 △신바람 레크리에이션 △무엇이든 만들어 보세요 △분임토의 △올라올라 체조시간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참가비는 4만원. 02738-7860

명성여중 자료전시관 열어

명성여자중학교는 19일 교내법당인 연화당 입구에 불교교육자료 전시관을 마련하고 개관식을 봉행했다. 불교유물과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불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전시관에서는 전시 유물과 불교교육자료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개교 7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이 전시관에는 불교문화재를 비롯해 전통문화 유물, 역사사진 자료 등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기증품에는 기증자의 이름을 표시해 놓았으며, 전시된 유물들은 학생들의 역사 및 불교교육을 위한 생생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021454-1758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⑤

• 누워서 하는 동작 •

선무기법 기초훈련과정의 하 나인 누워서 하는 동작은 허리나 척추, 목, 골반을 똑바로 하고 단단히복부에 기를 모아 온몸으로 기가 통하도록 한다. 이러한 동작을 할 때 잡다한 생각을 하나로 집중시키기 위해 항상 '이뤄' 화두를 이용한 호흡을 한다.



들어 젖던 골반과 척추가 교정된다.

<골반과 척추교정운동>

1. 양손을 머리 뒤로 돌려 척추-목-골반 똑바로 깎지를 끼고, 등을 바닥에 대고 눕는다.
2. 두 발목을 바깥으로 당겨 구부리고, 머리를 들어서 똑바로 발가락을 쳐다보며 발뭇꿈치로 흔들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3. 단전에 힘이 모아지면서, 떠는 움직임이 아니고 몸 전체를 하나로 유지하여 움직인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비

<혈액순환 촉진>

1. 바닥에 누워 손과 발을 들어 흔들는다.
2. 손과 발에 연결된 경락을 통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3. 발목과 손목의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숨을 내쉰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운동을 하면 온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푹푹!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